

# 신학대학 석사논문 “불교연구 다양”

##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목... 아전인수식 해석 우려도

김재경 기자

불교와 신학을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이 각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학대학 석사학위 논문에서 10여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불교관련 논문은 주로 비교종교학적 측면에서 시작됐으며 불교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양상을 띠고 있다.

기독교 내부에서 종교다원주의(宗教多元主義)가 확산돼, 타종교가 더 이상 사탄의 교일 수 없으며 사회공공체 속에서 엄연히 공존하는 대등한 종교라는 인식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신학자들의 불교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인식의 확대는 종교간의 상호이해를 통한 대립의 해소와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교에 대한 신학적 연구'란 측면에서 우려되는 면도 적지 않다. 그것이 학계의 경이다.

목원대학원 신학과 송용택씨는 「기독교와 불교의 고난이해에 대한 비교고찰」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고난 자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규명해 인간 실존의 근본문제를 좀 더 신학적으로 분석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 그 연구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신학에 기초함을 밝히고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최창일씨는 「백제 미륵신앙의 천년왕국적 성격」에서 「한(漢)과 메시아니즘이란 한국 민중의 종교적 영성에 구원의 빛을 밝혀야 하는 한국 기독교는 서구중

### 불교계도 비교종교학 범위확대 해야

심적인 정통신학의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고 비기독교적인 토착문화의 구원론에서 출발하는 민중종교신학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미륵불을 기독교적 메시자인 예수와 비교하면서 백제 미륵신앙을 한국적 민중종교신학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같은 학교의 남호씨는 「한국사에 있어서의 미륵불교와 민중신학의 의미」란 비슷한 주제의 논문에서 "민중 신학의 한 형태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미륵신앙에 대한 고찰과 함께 미륵신앙과 민중신학의 접맥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에서 역사의 변혁적 주체인 민중이 어떠한 정신적 맥락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최창일씨와 남호씨의 논문은 원시불교와 대승불교, 정토교 등 다양한 교리체계를 지닌 불교를 기독교의 메시아사상과 유사한 미륵신앙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함으로써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계명대학원 신학과 신상준씨는 「불교의 삼신설(三身說)과 기독교 삼위일체(三一一體)의 비교연구」에서 "불교의 법신(法身)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양적 용어로 말하면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관계이고, 과정신학의 용어로 말하면 동종적(統一的) 관계"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불교인과 기독교인들

이 양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도 없이 서로의 신앙권, 편견과 아집으로 법신과 인격신을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규정지어 버리는 태도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학자들의 불교연구는 신학적 방법론을 모태로 한 취사선택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불교 이해에서 벗어나 우려가 있는 반면, 불교와 기독교의 상호이해와 비교종교학적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불

교학계의 이에 상응한 연구 부족은 종교학에서 차지하는 불교학의 비중을 고려할 때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교관련 신학석사 논문은 △「삼(三)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오지수(89, 침례교신학대학) △「관상(觀想)을 향한 말씀 묵상에 있어 성수행의 방법적 응용에 대한 연구」 정형준(91, 가톨릭대) △「한국 전통교의 내세관과 기독교 종말론과의 비교」 서진호(84, 장로회신

학대학) △「한국 전통종교에 나타난 박사신앙에 관한 연구」 김용덕(91, 대구가톨릭대) △「선불교의 명상과 기독교 신비주의의 비교 연구」 Thomas Merton과 보조각사 지눌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용우(91, 감리교신학대학) 외에도 다수가 쓰여져 학위를 취득했다.

감리교신학대학에서 불교관련 논문을 지도했던 변성환씨는 "비교종교학 발전과 종교간 이해를 위해서도 이같은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며, "불교학계도 서양철학과 신학연구를 통해 학문적 연구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포스트모더니즘·해체주의의 신학 선 철학과 상통성 가져

### 부산신학교 김승철교수 발표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1870-1966)의 선(禪)철학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즉비(即非)의 논리'를 매개로 최근 서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를 동양적으로 수용하는 문재를 다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논문은 지난 9일 서강대에서 열린 종교신학연구소(소장·서공석) 월례발표회에서 부산신학교 김승철교수가 발표한 것.

김교수는 "서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다원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양하고 동양적·불교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다원적 다원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이 논문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외의 배경에는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의 의도를 더욱 활발히 진행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다원주의나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실제이해를 전착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김교수는 스즈키가 "기독교라는 타종교(非)에 즉(即)해서 인식되는 불교의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가치체계와 문화현상, 종교적 신념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울에 비추어 자기를 보는 것"이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존재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신학연구소는 신학·종교학·역사학·철학의 다양한 주제로 각 종교간의 학술적 대화를 계속해 왔다. (경)

### 절정기가 신을 받아야 살 사주라는데

**문** 남편 생일이 음력 4월 초파일입니다. 한 절정이 많이 '출가할 사주인데' 가정을 이루고 사니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나 신을 받아야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말에 동요의 빛이 역력한데요, 어찌해야 합니까?

(부산시 수정동·성빈모)

**답** 팔자 운명이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다 집착을 떼지 못하니 업이 있고 응보가 있고 유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받는 것이니 내가 팔자를 믿고 귀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기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빈집과 같습니다. 빈집에는 퍼들이도 들어가지 않고 짐승, 벌레들이 제멋대로 들락거립니다. 그러므로 마음도리를 활라 집을 비워놓는다면 누가 들고 나도 도무지 가능치 못할뿐 아니라 영혼한 놀이 주인노릇 하면서 심신

은갖 조화가 다 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을 굳게 믿으십시오. 뿌리만이 나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컨대 통그리진 배마디가 제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것도 태가 잘못 앉았다가 제자리에 가서 임신을 제대로 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육신을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자기 뿌리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몸 속에 있는 의식·생명·모습들이 내 몸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진실로 믿고 거기에 일체를 맡길 때 내 의식을 이 통신이 되고 일체로 몸 안에서 통신을 받아 전체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타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 어떤 예고든지 불어 타버리는 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벌어졌고 나로 귀결되는데 자성을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 직선할 틈이 없어 공부가 잘 안됩니다

**문**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몸이라서

독자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가람을 선원 대령스님께서 맡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지상상담**

길 묻는 이에게

을 맡쳐놓아도 속절없이 당하기만 할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십시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치 마십시오. 겁내고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해 겁내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되면 부처님의 뜻과 나의 뜻은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근본이 부처인 줄도 모르고 절정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팔자부가 되어야 올랐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마음의 열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체를 나의 근본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자기 주인공을 왜 믿어야 하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자기의 본래 모습인 주인공을 철저히 믿으라'고 가르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유상희)

**답**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보건의 열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데 어떻게 보배 창고의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내 속에 필요가 가득 차 있으니 잘났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 다 버리고 자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참 자기야말로 안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돌 위에 세워 놓이도 삽니다.

"주인공만이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관세음보살이 참나에 대해서도 법을 살하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참나에 대해서도 법을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관세를 보살님 살려주십시오'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 속에 재물보살과 역대 조사와 삼라만상의

차분하게 좌선할 틈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회회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경남 김해시 어방동·권혁인)

**답** 하루 생활 속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공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좌선한 이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좌선하는 사람은 방에 앉을 이유도 없고 먹을 이유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옷 입고, 남이 농사 지은 것 먹으면서 물질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거부한다면 바로 죽은 도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 사람이 타 타졌으니 거칠 게 없느냐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작으나 크나 짧으나 긴아 일하는 거나 앉는 거나 쓰는 거나 모든 게 결핍이 없을 이고 통 속을 벗어나야 어리석음을 다 태워 버리고 자유자재 할데도 불구하고 우선 앉아서 내가 마음공부를 꼭 해야지 하는 이것도 풀리가 터지질 않은 지혜롭지 못한 이치다 이겁니다.

또 생활 그 자체로는 도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활을 떠나서 불교가 없고 불교를 떠나서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려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어리석음을 펼쳐 버리고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안하나 공부 아닌게 없고 참선 아닌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몸과 마음을 풀이 아니게 다스리면서 관하고 나아가는 게 마음의 회합이요 공부입니다. 옛날 백장산사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엔닌스님은 한반도 도래인”

### 백제인 후예... 「입당구법기」·장보고상 남겨

**재일교포 남석환교수 주장**

지난달 31일 1천5백여년 만에 일본 국보수리 권위자인 다카하시 준부씨(高橋俊夫·75)에 의해 교토 삼정사(三井寺)의 장보고(張保皋·?~846)상이 공개된 데 이어, 이 상(像)을 제작한 엔닌(圓仁·794-864)스님이 한반도 도래인이라는 사실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일 교원대 박물관 주최로 열린 '문화사국제대강연회'서 재일교포 남석환교수(일본 남송(南

宋))의 「최후의 건당사(遺唐使)와 엔닌」이란 주제발표에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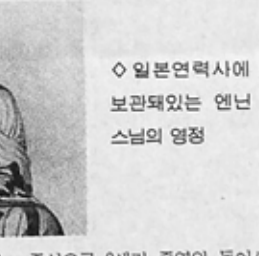
다카하시 준부씨는 최근 내한강연에서 "서해에서 풍랑을 만난 엔닌법사가 장보고(張保皋)에 관한 최초의 면밀한 기록"이라고 입증했다.

엔닌의 속성은 임생씨(壬生氏)로 상모야씨족(上毛野氏)에 속하는데, 상모야씨족은 백제도래씨족인 전변사(田邊氏)의 후예였다. 엔닌이 당에서 신라인의 도움을 받게 됐던 것도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9년 이상 중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일기인 <

입당구법행기(入唐求法記)>를 남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엔닌의 「입당구법기」는 일본인이 남긴 제1급의 위대한 일기일 뿐 아니라, 중국의 생활양식에 관한 최초의 면밀한 기록"이라고 입증했다.

엔닌의 속성은 임생씨(壬生氏)로 상모야씨족(上毛野氏)에 속하는데, 상모야씨족은 백제도래씨족인 전변사(田邊氏)의 후예였다. 엔닌이 당에서 신라인의 도움을 받게 됐던 것도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9년 이상 중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일기인 <

엔닌은 중국을 방문한 일본 두번째의 천대종 지도자였다. 최초의 방문자 최정(最澄)은 짧은 체재기간으로 불문 교의의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엔닌은 체재기간이 길어 그 기회를 얻었다. 남교수에 의하면 "일본 천대종에 대한 엔닌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밀교를 소개한 데 있었다"고 한다. 엔닌의 「입당구법기」는 엔닌과 신라인과의 관계를



◇ 일본연력사에 보관돼있는 엔닌스님의 영정

제2차

## 전국 어린이불교 학교 지도자 연수 교육 안내

**|| 목적:** 실제 어린이 입장이 되어 모순과 꾸밈을 다스리고 마음드는 법을 배워 법회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진솔한 믿음으로 각자 자기 신앙을 쌓게하는 데 있다.

**|| 내용:** · 주인공을 믿고 관하는 도리  
· 지도 교사 실천 현장 체험 성공 사례 발표  
· 화엄놀이

**|| 일시:** 1994년 11월 26일(토) 오후 6시~11월 27일(일) 오후 1시(1박 2일)

**|| 장소:**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주리 산 5-2번지)

**|| 대상:** 어린이 법회에 관심있거나, 현재 소임을 보는 스님, 일반 지도 교사

**|| 참가비:** 15,000 원

**|| 신청문의:** 한마음선원 본원 및 각 지원  
본원 0343-72-3100  
금왕지원 0446-877-0462

**※ 뜻이 있으면 본은 11월 24일 까지 신청 명목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 선원 어린이 지도 교사회**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 이야기 한국불교사 I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김현준 지음 / 삼국판 / 344면 / 값 6,000원

“구도의 불길이 한 순간도 꺼진 날이 없었던 1600년 한국불교사 이제 그 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야기 한국불교사 I」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 쓴 책으로 불교도는 물론 일반인·종교개혁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한국불교사 관계 책 중에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법보사를 원하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꼭 필요!**

전화: 587-6612-6613 FAX: 586-9078

(사할, 그 속에 깃든 의미)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김현준씨가 감동깊게 엮은

## 경북대선사 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아 연극 한바탕 멋있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경북대선사.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북대선사. 이 책을 펼쳤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이 시대 최고의 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김현준 지음/삼국판/219면/값 4,300원

전화: 587-6612-6613 FAX: 586-9078